

교회목표

1. 천국일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 18:1)

주간총회

발행인 : 이 중 윤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 552-8200 FAX: 552-2925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6호

90년도 목회 지침 : 사랑과 진리로 섬기는 교회

한국 교회 성장 연구원 주관

제4학기 목회자 세미나

2월 12일~4월 16일

우리 교회 부설 한국교회성장연구원은 오는 2월 12일부터 4월 16일까지 "복음 전도와 사회 봉사"라는 주제로 제 4 학기 목회자세미나를 개강한다.

이 세미나에서 이종윤 위임목사는 주강사로서 "요한복음신학"에 대해, 그밖에 전재욱 교수, 손봉호 교수, 박형용 교수, 김준곤 목사, 박영철 교수, 성규탁 교수, 전호진 교수, 김홍도 목사, 신예철 목사가 강사로 초빙되어 각기 주제에 따른 강의를 하게 된다. 또한 세미나 기간 중에 "교회와 국

가"를 주제로 심포지움도 열릴 예정이다.

지금까지 '교회개신과 성장', '예배와 설교', '목회·신학·교육' 등을 주제로 전국 각지에서 교파를 초월하여 모인 목회자들이 참가하여 세 차례의 세미나가 진행되어 호응을 얻었으며, 참가자들에게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고취시키고 보다 효과적인 목회를 위한 자기 개신의 기회를 제공해 왔다.

이번 세미나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 20분까지 우리 교회 본당에서 진행된다.

애굽에서 온 선교 소식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이준교 선교사는 카이로 한인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선교 일선에서 수고하고 있다. 특히 이 교회의 성도들은 작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12월 23일에 애굽의 헬완 고아원과 헬리오폴리스 맹인고아원을 찾아 원생들을 위로하고 구제헌금을 전달하여 멀리 이국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였다.

한편 이준교 선교사는 애굽복음신학교에서 교회성장학을 강의하면서 한국 교회의 성장을 소개하고, 특히 영적 개신과 부흥을 거듭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소식을 전했다. 또 작년 12월 17일에 개최된 애굽대학생 초청 전도대회에서 강사로서 학생들에게 신앙 안에서 새로운 삶의 좌표를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기도 했다.

신간안내

《그리스도인의 고난》

아시아 교회들과 신학교를 위해 복음주의적 신학 입장에서 학술 서적들을 영문으로 발간해 온 아시아신학연맹(Asia Theological Association)이 지난해 열번째로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한 문제를 아시아 상황에서 해석한 《그리스도인의 고난(Christian Suffering in Asia)》을 출간했다. 이 책은 우리 교회 이종윤 위임목사의 '신약성경에 나타난 고난' (Suffering in the New Testament)이라는 논문을 비롯하여 22 명의 아시아 여러나라 학자들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는데, 국내에서는 우리 교회 테이프 보급소와 엠마오세에서 권당 8,4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아시아신학연맹(A. T. A.)에서 간행된 책 가운데 《신론》(God in Asian Contexts)과 《조상숭배문제》(Christian Alternative to ancestor Practise), 그리고 《한국교회 성장론》(Korean Church Growth Explosion)과 같은 책에도 이종윤 목사의 논문이 게재되어 있다.

■목회자 단신

믿음의 가족들에게 드리는 사랑의 편지 ④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여!

금년에도 다시 군이 대학입시에 낙방을 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군을 아끼고 사랑하느라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과 함께 나는 큰 충격을 받았네. 재수는 필수요, 삼수는 선택이라고는 한다지만 군에게는 이번이 여섯 번째의 고배이니 어찌 이 괴로움을 말로 형언할 수 있겠나. 뇌성마비의 장애인이라서가 아니라 신앙적 용기와 불굴의 투지가 놀라웠던지 얼마 전 모일간지에 자네에 대한 기사가 실렸던군. 나는 군의 피맺힌 글을 읽었지. '내가 공부를 포기하는 것은 곧 죽음을 뜻하는 것이다. 넘어지면 일어서고 다시 쓰러지더라도 일어난다. 그래서 정상인과 장애자가 어우러져 학문을 논할 수 있는 대학을 세우고 싶다.'

사랑하는 B 군이여!

하나님께서 왜 군에게 오늘의 시련을 주셨는지 나는 알 수 있을 것 같네. 군의 그 소박한 학문에 대한 집념과 미래 세계에 대한 꿈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군을 사용하시려고, 그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의 고난의 때가 주어진 것이라 믿네. 학교라곤 국민학교도 못가보았지만 군은 교회를 통해 한글을 깨쳤고 성경을 읽으면서 문학과 인생을 배웠으며, 중학교 입학 검정고시와 고등학교, 그리고 대입 검정고시까지 합격한 한 수재가 아닌가. 중현교회는 군과 같은 젊은이를 교인으로 함께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싶네.

홀어머니의 피눈물나는 수고와 기도의 땅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며 칠천팔기의 집념으로 부딪는 큰 꿈을 버리지 말고 뜻을 보고 달려가 승리하는 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돌리고 이 나라의 수많은 장애인들에게는 큰 꿈을 안겨주고 자랑스런 중현인으로 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주님의 특은이 군의 앞날에 함께하기를 기도하네.

1990년 2월 4일

이종윤 목사

전교인 성경통신강좌에 적극적인 참여를

우리 교회의 성경연구원이 주관하는 전교인 성경통신강좌가 금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정확무오한 삶의 안내서인 성경을 읽고 공부하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생활화 하고 사랑과 진리로 섬기는 교회를 이루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제기부터 시작된 이 강좌는 출애굽기까지 진도가 나갔으며, 2월부터는 현재 중현매일성경읽기교의 진도에 맞추어 공부를 계속하기로 하고 시편 39편부터 출제할 예정이다. 매일성경읽기교에 따라 문제를 출제함으로써 보다 많은 성도들의 참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통신강좌답안지는 분당 1.2층 현관 앞에 비치된 성경통신강좌함이나 교구간사에게 제출해 꼭 다음 주 교구 모임시간에 돌려받게 된다.

이 강좌에 참여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할 예정이고, 3년 수료자에게는 성경교사 자격증 수여, 구역장 자격 인정, 제직 임명 시 우선권 부여, 안수집사·권사 피택 및 임직 부여 시 성경시험 면제의 특전을 부여할 예정이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본 성경통신강좌에 적극 참여하여 개인의 신앙성장과 함께 섬기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사명을 다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위임목사 동정

목회자를 위한 계절대학원에서 강의

이종윤 위임목사는 오는 2월 8일에 개혁신화신학교에서 주관하는 목회자를 위한 계절대학원에서 "기독교지도자론"을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다.

교회안내

주일예배	I부 : 오전 7시 II부 : 오전 11시 English Service : 오전 9시 전야예배 : 오후 7시 ※ III부에는 수화, 영어, 일어, 중국어 동시 통역	III부 : 오전 9시 IV부 : 오후 1시
수요일예배	I부 : 오전 11시 II부 : 오후 7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11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교회학교	영아부, 유치부, 초등1~6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1~2부, 장년1~4부, 소양부, 영어부, 외국전도부, 대학장학, 새가족부, 사관부, 예비대부, 탁아부, 장로장로대학	
방송설교	기독교방송(837KHz) 주일 오후 7시	
선양	화요일~주말 오전 10시~오후 5시 (전화 555-6684)	
일반	주말 오후 1시~오후 5시 수요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전화 555-5122)	
위임목사	주일 오후 12시 30분~오후 3시	
새부	셋째 주일 오전 10시 30분~오후 3시	

실로암 찬양대 찬양 테이프 제작

매주 수요일 부예배에서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실로암찬양대(대장 이병학 장로, 지휘 김영준 찬양, 반주 임효선 찬양)가 성도들이 즐겨부르는 찬송가를 묶어 "주의 집에 있을 때"란 제목의 찬송 카세트를 만들었다.

합창과 독창으로 수록된 이 찬송 테이프에는 "주의 집에 있을 때", "나 주의 도를 밟고", "우리를 죄에서 구해사라" 등 열다섯 곡이 수록되어 있다.

구입을 원하는 성도들은 교회내 테이프 보급소에서 1,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성경 강해

주님이 가시는 곳

「예수께 대하여 우리의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속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터이요 나 있는 곳에…」 (요 7:32-36)

이 중 윤 목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배척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수군거렸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속들을 보냈습니다.

대제사장은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로마 정부는 유대교를 정치적으로 파괴시키려는 자기들의 목적을 위하여 해마다 대제사장을 임명하였으므로 그 수가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어서 시민권과는 별로 접촉이 없었던 이 대제사장들이 당을 조직하고 성전 예배와 세금문제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 역시 예수님께서 율법을 범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리라”(요 7:33)는 말씀으로 응전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몇가지 찾아 보겠습니다.

1. 예수님은 시간과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7장 33절에서 중요한 말은 ‘조금 있다가’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시고 물질세계뿐 아니라 시간 세계까지 마음대로 운영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시간까지 지배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주일 헌금을 드리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표시입니다. 감사헌금은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감사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 물질만 바칠 줄 알지 시간을 바칠 줄은 모릅니다.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고 시간은 내 것인 줄 압니다.

본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완수할 때까지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그 때로부터 6개월 후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기 위하여 제포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6개월이란 기간을 마음대로 조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요 7:30)는 말씀은 세계를 완전히 주님의 손에 넣고 계신 것을 나타내 보여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역사를 내가 주장하고 시간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는 줄로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과오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흠은 큰 부족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면에서 부족한 자였습니다. 그는

동방의 의인이요, 온전한 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요, 악을 미워한 자였습니다. 사단은 이런 흠을 시기해서 하나님께 흠을 시험해 보자고 청원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허락하였습니다. 흠은 재산과 자녀를 모두 잃고 심지어 몸에 창질까지 생기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극심한 곤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우리는 마귀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 하에서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지키시므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물질세계를 주장하시는 것처럼, 신앙세계도 운영하시고 지배하시기 때문입니다.

2. 예수님은 미래를 지배하시는 하나님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리라 하신대”(요 7:34)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유대인들과 합

계 하시면서 여러가지 기적을 나타내시고 가르치셨지만 저들은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완악한 인간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을 통하여 그로부터 40년을 연결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로마 군인들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게 되었고 기독교는 엄청난 박해와 시련 앞에 놓이게 되었으며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지경에까지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고후 6:2)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를 놓치면 안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물론 어제와 중요하고 내일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과거나 미래보다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라버린 잎사귀에서 내일 열매를 기다리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상심하고 푸른 잎사귀야 내일에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바로 이 시간에 정성스럽게 주님을 섬

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가는 곳을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아니 고서는 영적인 세계를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유명한 천재 음악가 모짜르트가 어느 도시를 지나다가 “모짜르트 연구소”라고 쓰인 간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 자기를 연구하기 위해서 연구소를 냈구나 생각하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많은 음악 교수들이 모인 가운데 모짜르트가 작곡한 곡목을 나열해 놓고 한 사람이 연구한 내용을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이 곡은 모짜르트가 한 여인을 사랑하다가 실연을 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비통함에 젖어 만든 것입니다.”

신적 본성으로 하늘에 영원히 계신 분

모짜르트가 뒤에서 가만히 들어보니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손을 들고 “내가 아는 모짜르트에게는 그런 일이 없었고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음악가가 해설을 하는데 당신이 무슨 근거로 그런 소리를 하느냐는 눈치들이었습니다. 누가 진짜 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지 못하면서 아는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시간은 오늘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정성껏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사 55:6)고 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가 주님을 만날 자리입니다. 바로 이 자리가 용서받을 자리입니다. 바로 여기가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과 그렇게 오래 함께 계셨고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치더니 2천년 동안 나라를 잃고 세상 도처에 흩어져서 그 무서운 핍박과 환난을 받으면서 자작은 손고통의 잔을 마셔야 했습니다. 그들이 받을 만한 은혜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3.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위해서 가셨다.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요 7:34)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분명히 이 세상, 땅 위에서 하셨는데 그들은 ‘주님이 서신 곳은 쉼인가, 아니면 불꽃이 여기저기 활활 타오르기 때문에 접근하지 못한다는 말씀인가’라는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

타내고 있습니다. 신적 본성으로 하늘에 영원히 계심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절대적이고 영원하신 교제로 들어가 초자연적인 위치에 계시게 되므로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는 인간들은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신성으로 돌아가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또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요 7:35)라고 하며 의아해 하였습니다.

흩어져 사는 자들이란 예루살렘에 핍박이 나서 여기저기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헬라어로 디아스포라(diaspora)라고 합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디아스포라 교회라고 합니다. 신학자들은 디아스포라 신학이라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헬라사회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에게서 가서 설교하려는가”라고 하며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앙적인 생각밖에는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신성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간적인 가능성만을 근거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일을 육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지방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시몬 아 네가 복되도다 네게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네게 알게 한 것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 16:16, 17).

영원한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에 의해 주신 것만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노력하고 연구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나 다른 종교들은 하나님을 자기들이 연구해서 찾아 올라가려고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영으로만이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주님이 가진 그 길을 바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물질세계를 주관하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십니다. 따라서 주님을 섬기고 그 주님을 회개하며 따라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완주에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 목회자세미나 수강 소감

목회자의 자기 갱신과 발전의 기회

홍 문 수 목사(신반포교회)

세계 교회 역사상 유례 없는 성장의 위업을 이룩한 한국 교회! 바로 그런 교회의 일원이 된 것, 특히나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에 늘 감사와 긍지를 느낀다. 그러기에 한국 교회에 대한 비판이나 자성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더욱 가슴이 아팠다. 한국 교회가 양적으로만 비대하다니, 몰락주의화되어 간다니 급속도로 세속화되고 있다니, 이런 식으로 나아가다간 쇠락한 유럽 교회의 재판이 될 것이라니... 이런 소리를 듣노라면 나 자신부터 망연자실해지고 의기소침해 지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부정적인 현상들에 대한 책임이 일차적으로 목회자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런 사실은 잘 알고 있지만 분주하고 일상적인 목회사역을 하다 보면 나 자신부터 매너리즘에 빠지고 안일해져 버리기 때문이다. 그런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깊은 무력감을 느꼈던 적이 많았다. 그럴 때마다 한국 교회 갱신운운하는 소리들이 얼마나 공허한가 자책도 해보곤 했다.

그러던 중에 충현교회 부설 한국교회성장연구원에서 목회자세미나가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솔직히 처음엔 그저 의례한 세미나이었거니 하고 별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여기저기서 각종 세미나가 개최되고 있었지만 지나치게 방법론에 치우쳐 본질적인 도움이 안되는 경우를 적잖게 보았기 때문이다. 지금 돌이켜 보면 설부른 판단이었지만, 당시엔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프로그램을 보니까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았다. 무엇보다 장기적인 연속 과정이라는 데 호감이 갔다. 6 학기 2년 과정, 그리고 과목도 이중윤 목사님의 강좌는 10주 연속강의라는 점이 마음을 끌었다. 또한 강좌 내용이나 강사진이 지나치게 이론에 혹은 방법론에 치우치지 않고 양자가 조화되어 있는 점에도 호감이 갔다. 더욱이 개인적으로 많이 부족하고 어린 목사라는 점에서 무언가 자꾸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던 터이라 선택 등록을 할 수 있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

한 일인지!

그렇게 시작된 나의 세미나 참석은 1학기, 2학기, 3학기까지 몇 번 빠지기는 했으나 비교적 꾸준히 지속될 수 있었다. 지난 3 학기 1년의 과정을 보내면서 나 자신에게 크나큰 영적 각성과 유익의 기회가 되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중 몇 가지를 회고하며 정리해 본다.

첫째로, 한국교회성장연구원 같은 기관의 존재 사실 자체에 깊은 감사를 느꼈다. 일선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지속적인 자기 갱신과 발전의 기회가 희박하다는 점이다. 오래 전에 받은 신학교육이 목회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활용되느냐도 문제려니와 세월이 흐르면서 고갈 상태가 역력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쁜 목회사역, 경제적인 문제, 마땅한 교육기관의 부재 등 여러가지 원인으로 목회자 재교육이 미미한 실정이다. 목회자 갱신이 곧 교회 갱신일진대 이런 상황에서 어찌 교회의 진정한 성숙과 성장을 도모하겠는가? 차체에 한국교회성장연구원 같은 기관의 존재는 큰 기쁨과 소망이 아닐 수 없다.

둘째로, 세미나 참석자들의 열기에 감쪽 놀라고,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한국 교회의 잠재력과 밝은 미래를 보는 것 같아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 사실 나 자신이 등록하겠다고 마음먹으면서 그저 이삼백 명 내지 사오백 명 정도나 모이겠지 하고 지레 짐작했었다. 그런데 1 학기 등록자가 무려 1천2백여명이 상회하고 예정된 장소조차 바꾸어 그 큰 본당까지 차지하게 되었다.

2 학기, 3 학기로 가면서 증가추세는 계속되었다. 참석자들의 교과별, 지역별, 연령별, 직분별 분포도 다양한 것을 보고 또 한번 놀랐다. '한국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해도 역시 살아 있구나!' 무한한 가능성이 있구나!' 하고 기뻐할 수 있었다. 더욱이 머리가 회회회한 대산배 목사님, 또 먼 지방에서 밤차를 타고 천리가 멀다하지 않고 물려오시는 목회자님들을 보면서 나 자신에게 큰 각성과 도전의 기회가 됨을 느꼈

다. 강의 내용이 좋은 것도 그러려니와 참석자들의 그 뜨거운 열기는 나의 영혼을 휘감아 올리기에 충분하였다.

셋째로, 충현교회의 섬기는 모습에 또한 감동을 받았다. 규모가 큰 교회일수록 어떤 면에서는 갖가지 사안이 많기 때문에 그 자체를 감당하기에 나름대로 벅찬 점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일천 수백명의 인원을 매주 정성껏 섬기고 또 투자하는 모습이 너무도 고마웠다. 개교회주의가 팽배해 있는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전체를, 그리고 한국 교회를 한 눈에 보면서 섬길 수 있는 그 스케일에 사뭇 놀랐다. 역시 충현교회는 '통이 큰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외에도 나 자신으로서는 한 주간의 사역과 삶에 영적인 충전을 받는다는 의미도 컸다. 목회자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는 배우는 자세와 기회의 부족이다. 남을 가르치

기는 잘하고 말은 많이 하지만, 겸손히 배우고 그대로 실천하려는 자세가 자신도 모르게 약화되기 십상이다. 그런데 월요일 오후만큼은 어린아이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목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조금씩 변화되어 나아갈 때 섬기는 지교회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갱신될 수 있다는 확신을 느낄 수 있었던 것도 목회자세미나에 참석하며 맛보는 즐거움 중 하나였다.

이와 같이 귀한 도전과 갱신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현재의 2년 과정 이후에 후속 강좌가 계속되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계속 개설될 바란다. 아무쪼록 한국교회성장연구원 섬기는 모든 일들을 통해 이 땅의 목회자들이 갱신, 또 갱신되고 더 나아가 한국 교회와 민족 사회가 갱신되는 주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길 간절히 소원한다.

■ 탐방 - 상담실

신앙의 장벽을 해결합니다

선교관 205호에 자리 잡고 있는 상담실은 성도들의 심적 고통을 치유해 주는 영혼의 병원과도 같은 곳이다.

상담 사업은 수년 전부터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준비해오던 사업으로서, 이두란 전도사님께서 작년 8월 20일부터 지금까지 상담을 맡아해오고 계시다. 이곳에서는 구원에 대한 불확신과 같은 신앙의 부족에서 오는 갈등, 성경 말씀이나 이단 종파에 대한 질문이 주류를 이루는 신앙상담과 가정 구성원간의 갈등(부부간에 생기는 내적, 외적 갈등, 자녀 교육과 이에 실패함으로써 생기는 갈등 등)으로 인해 생기는 불화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함께 모색해 주는 가정상담과 혼인 연령에 달한 젊은 남녀 성도들의 새로운 삶의 설계를 위한 결혼상담 등을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내담자들이 가장 많은 상담을 요청해 오는 부분은 신앙에 관한 문제라고 한다.

이와 같이 성도들이 실생활에서 겪게 되는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상담은 물론 내담자들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고 있어 우리 교회 교인들뿐 아니라 타교회 교인들까지도 이곳을 찾는다고 한다.

상담자의 역할을 해나가는데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느냐는 질문에 전도사님께서는 내담자들이 난해한 문제들을 상담해올 때가 가장 힘들다고 하셨다. 하지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나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게 되고 어떤 때에는 내담자들이 문제를 얘기하는 도중에 스스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때도 있다고 하셨다.

상담을 하다보면 힘든 만큼 보람 또한 크다고 하셨다. 상심한 모습으로 왔던 사람이 문제 해결을 받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 특히 가정의 갈등으로 인해 찾아왔다가 상담을 하고 난 뒤 가정이 화목해졌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을 때는 정말로 큰 보람을 느끼신다고 하셨다.

이 전도사님께서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자기의 말은 바 책임에 충성을 다하여 가정과 교회의 화목을 도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하셨다.

세 기 등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노 문 환 장로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동경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앙 위인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그러한 삶의 모습을 발견하며 그런 삶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본받아야겠다고 마음에 다짐하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며 또 그렇게 살 수 있는가 하는 면에 있어서는 무척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며

어떻게 그러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들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므로 인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누려야 할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옛 습관을 좇아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의 그 무엇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생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이미 우리는 신분적인 면에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분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인식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또 한가지 간파하고 있는 것은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의식할 때가 많다는 것이다. 성경의 위인들은 분명히 사람보다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행동하였던 것을 상기하면서도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는 사람을 더 많이 의식하므로 인하여 여전히 옛 생활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기 위하여 이미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분명한 사실 인식과 함께 지금까지 우리가 의지하던 세상의 여러가지 것들을 포기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생활 자세를 갖자.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생활의 현장에서 항상 하나님 편에서 행한다는 생각을 갖고 철저한 자기 실행을 통하여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누리는 참된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자.

다음호 세기등은 이문선 장로님께 부탁드립니다.

청과동에 살 때이다. 아내가 부흥회가 있으니 가보자고 했다. 교회에 가는 일이라면 별로 좋아하지 않을 때였으나 어떻게 가게 되었다. 수복 직후여서 예배당 밖 뜰에서 전 등불 하나 켜 놓고 부흥회를 하는 것이었다. 그때 처음 김창인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목사님은 용모가 잘 생기고 말씀도 잘하셨다. 그 전에도 교회에 몇번 가보았지만 목사님들의 설교가 딱딱하고 무미건조하게만 들려 설교란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설교도 재미 있게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처음 알았다.

우리 가정은 후일 신당동으로 이사를 하였고 아내는 충현교회에 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였다. 아내는 청과동에서 살 때 가보았던 설교 잘 하는 목사님이 시무하시는 교회라고 하면, '내가 교회에 나가기를 원했다. 그러나 나는 말씀이 좋아도 예배당이 라고 하면 별로 구미가 당기지 않았었다. 그때 만해도 주일에는 집에서 편히 쉬든지 야외로 나가든지 하는 것이 더 좋았기 때문이었다.'

아내는 나를 교회에 나가게 하려고 무척 애를 썼다. 밤이 되면 나에게 먼저 자라고 하고는 아내는 기도를 했다. 그 내용은 나를 교회에 나가게 해달라는 것임에 틀림없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아내가 보이지 않아 이리저리 찾아보면 지하실에서 혼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아내를 발견할 때가 많았다.

당시 찬양대원이었던 아내는 주일이면 일찍 교회로 갔다. 그러나 나는 예배당에 가기가 싫어 늦잠을 자곤 하였다. 그래서, 깨어보면 식구들이 모두 교회에 가고 집에 남은 사람은 나 혼자뿐이었다. 아내는 혹시 내가 기분이라도 상하여 교회에 가겠다고 했던 마음이 바뀔까봐 평소보다 더 많은 정성을 들여 밥상을 차려 놓았다. 또 현금까지 미리 성경 책 값과에 끼워 가방 안에 넣어 두었다. 그리고, '예배당 가는 시간 잊지 마세요.'라고 적은 쪽지를 남기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런 아내의 정성에 대해 '하루 해 봐라 내가 들을 줄 알아?' 하는 식의 반감을 품기도 했다. 또 어떤 때는 회사에 일이 있거나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고 하는 핑계를 대며 주일을 지키지 않을 때가 보통이었다.

장모님께서도 내 신격을 아시고 교회까지 가는 말씀을 한번도 안하셨다. 그러나 장모님의 얼굴에서는 우리 사위가 교회에 가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근심을 읽을 수가 있었다.

자 증

예수 믿는 여자와 꼭지어 주신 하나님



이 재 기 집사

내가 가끔 일선에서 집에 왔다 돌아갈 때면 장모님은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반드시 기도를 해주시고 보내셨다. 그럴 때마다 나는 싫다는 말은 못하고 '귀찮게 또 무슨 기도요' 하고 속으로 불평하였다. 지금 같으면 장모님께 '일선에 갑니다.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며 내가 먼저 기도를 부탁했을 텐데 이 같이 나는 축복 받는 일을 거절하는 미련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어느날 큰 아들이 신학교에 다니고, 아내는 전도사일을 할 터이니 허락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내는 그것이 자기의 마지막 소원이라고 했다. '에라, 모르겠다. 내가 얼마나 더 살겠다고 소원이라는 데 못 풀어주겠느냐. 마음대로 해라.' 하고 승낙을 했다. 그런데 허락은 했지만 문제가 생겼다. 지금까지는 신앙 생활을 적당히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남들이 제 아버지 하나도 전도 못하는 사람이 목사나 제 남편 하나 전도 못 하는 사람이 전도사나라는 말이 들릴까 봐 걱정이 된 것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억지로라도 교회에 잘나가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참고 서적도 많이 읽으면서 성숙된 신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노력하였다. 그래서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집사가 되었고, 또 얼마 후에 안수집사가 되어 교회에서 부회계 일까지 맡아 보며 교회가 요구하는 일에 거절하지 않고 순종하게 되었다.

우리 교회가 장로 10명을 선출할 때였다. 장로 후보 명단에 내 이름도 있었다. 나는 장로가 안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 이유는 장로가 되면 교회 일을 많이 해야 하고 오라 가라 하는 것이 싫어서였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장로 선출에서 빠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드렸다. 투표 결과 나는 열세번째로 낙선되었다. 그 소식을 듣고 소원대로 되었구나 하고 기뻐했다.

그러나 그 기쁨은 며칠을 가지 못했다. 소화가 잘 안되고 심한 구역질이 났다. 병원에 입원하여 종합진찰을 해보니 직장암이었다. '이제는 다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

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없었으나 건강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일하지 않았던 것이 후회가 되었다.

나는 병상에 누워 지난 일들을 생각해보았다. 내가 태어나서, 결혼해서, 지금까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큰 죄, 작은 죄 너무나 많은 죄를 저질렀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크게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다. 며칠 전에 장로 안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한 교단이었다. 아내가 평소에 나에게 늘 하는 얘기가 장로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아내는 하나님께 '나를

장로로 세워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도 많이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하튼 자꾸 생각에 떠오르는 것은 장로 피택을 원치 않았다는 죄였다.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부족하고 미련한 종이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장로직을 원치 않았고 안된 것을 기뻐하였습니까?". 이제 살려 주신다면 장로직 아니라, 그 무슨 어려운 일이라도 "예"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기도를 퇴원할 때까지 수없이 하였다. 고마우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셨다. 이제 퇴원 후 3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

하나님은 이 못난 인간을 특별히 사랑하여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예수님을 믿는 여자와 꼭지어 주시고 그의 전도를 통해 내가 주님을 앙모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고 전쟁터에서 보호해 주시고 암병까지도 치료해 주셔서 후손들에게 신앙의 유산까지 물려주게 하신 은혜에 감사할 따름이다.

■ 겨울 계절학교 다녀와서

주님의 크신 능력 깨달아

이 종 훈 (중등부)

지난 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열렸던 중등부 겨울 수련회는 내 생활에 큰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출근하는 사람들로 만원인 버스와 지하철에 시달리면서 둘째날까지는 참사를 했으나 셋째날은 교통지옥에 시달리면서 교회까지 가야 할 것을 생각하니 수련회에 오기가 싫었다. 그러나 임원인 내가 빠질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셋째날까지 모두 참석할 수 있었다. 나중에 깨달은 것이지만 내가 임원이라는 직책에 너무 집착했었던 것 같았다.

장희중 목사님께서 인도하신 부흥회와 요셉의 믿음에 대한 강의는 정말 인상깊었다. 요셉은 나와 크게 다를 것이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채색옷을 베키시고 하나님의 학교에 입학시키시고 그의 믿음 때문에 감옥에서 2년 동안 채수하게 하셨다는 목사님의 비유는 나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

다. 또한 김해규 목사님의 천주교의 이단성, 김은태 목사님의 복음의 능력, 그리고 믿음의 비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안내를 주체로 한 강의들을 들으면서 내가 너무 안일하고 습관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했었음을 반성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수양회의 마지막 순서였던 주님과 대화 시간에,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참으로 광대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나는 이 감격의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 안에서 말씀에 굳건히 서서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좀더 인내하고 아픔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답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있게 하사 모든 생물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설 명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온 우주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모든 창조물 가운데 인간은 최대의 걸작품임에 틀림이 없다. 전피조물 가운데 유독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구체적으로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의미한다.

질 문

1. 하나님은 어떻게 만물을 창조하셨습니까(시33:6; 히11:3)?
2.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만물을 창조하셨습니까(시43:7; 계5:11)?
3. 인간 창조의 특이점은 무엇입니까(창1:27)?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6 과 하나님의 창조

성 경 : 창 1 : 27, 28

요 절 :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1:1)

찬 송 : 30, 46

제 9 문 : 창조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답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그 권능의 말씀으로써 만물을 지으신 일인데 모든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제 10 문 :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